

編入學制 시행, 副作用이 더 많다

蔡 京 錫
(湖西大 行政學科)

1. 머리말

大學 編入學制度에 관한 贊反論議는 人力開發의 效率性, 大學교육의 質的 水準 向上, 大學間 均衡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視角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입학 제도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意義를 살리면서도 大學間의 秩序를 유지하고 중소 규모 大學을 보호·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專門大學 졸업생들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4년제 대학 간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編入學制度는 制限의이기는 하지만, 大學의 門戶를 개방함으로써 機會를 제공하고 대학 당국에는 결원을 보충케 함으로써 대학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意義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자칫 잘못 운영된다면 여기에서 파생될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으며 그것이 갖는 利點보다 몇 배나 많은 부작용을 볼

러 일으킬 수 있다. 만일 편입학의 허용이 전문대 졸업생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4년제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허용된다면 대학 간의 秩序가 와해될 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 대학의 학사 운영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또한 社會的 浪費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 대학 편입이 전문대 졸업생에게만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高等教育의 量的 擴大

1945년 해방 당시 1,937만 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9년에 4,248만 명을 넘어섰으며 1990년에는 4,2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경제기획원, 1990년 경제 운용방안, 1989)되고 있어 해방 당시보다 거의 2.2배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급격한

人口의 量的인 變化 속에 해방 당시 8천 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高等教育 人口는 1989년 현재 160만 명(대학교,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포함)에 이르러 해방 45년만에 200배라는 실로 기록적인 量的 增加를 나타냈다. 高等教育 人口가 이처럼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高等教育 就學率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9%(대학교,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포함)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 인구 1천명당 대학생 수 등의 教育指標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高等教育의 大衆化現象은 거의 先進國의 水準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1960년대초에 3조 원에 불과하던 國民總生産이 1988년에는 123조 원(경상가계 기준)에 이르렀고 1인당 GNP도 1988년에 \$4,040, 1989년에는 \$4,

〈표 1〉 고등교육 기관 학생 수 현황과 전망

구 분		1989	1991	2001
대학(교)	학생 수	1,020,771	1,048,104	1,198,794
	교원당 학생 수	32.23	28.47	18.78
전문대학	학생 수	291,041	332,035	380,498
	교원당 학생 수	41.58	29.37	20.25
교육대학	학생 수	17,182	27,063	29,776
	교원당 학생 수	25.30	21.95	19.00
대학원	학생 수	81,171	122,840	184,534
	교원당 학생 수	127.23	171.56	143.16
방송대 및 개방대 학생 수		196,115	205,972	271,389
고등교육 위학률(%) 인구 만명당 고등교육 학생 수		49.9%	38.26% 386.69	48.16% 411.49

*자료 : 1989 년은 문교통계연보, 1991 년과 2001 년은 한국개발연구원, 2000 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p.98 참조하여 작성.

830, 그리고 1990년에는 S5, 230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政治的으로도 先進政治의 指標라 할 수 있는 地方自治의 實施를 目前에 두고 있다. 住居環境을 비롯한 國民生活水準, 農·林·水産業, 社會間接資本, 기타 서비스 産業 등의 産業構造, 國民福祉, 教育, 國際의 地位의 향상 등 모든 部門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先進社會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社會制度나 環境의 先進化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방 이후 南北 分斷과 잇따른 6·25, 4·19, 5·16, 10·26, 5·18 등 크고 작은 歷史的 試鍊과 葛藤, 그리고 南北間의 體制競爭과 對峙狀態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국가의 생존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높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면서 先進國의 문턱에 다다른 것은 실로 경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부

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民族의 力量이요 底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의 성장과 발전을 유지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國民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과 國民의 에너지를 발전의 動因으로 활용해 온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國民적 에너지와 발전의 잠재력은 바로 그동안 전력을 다해 온 教育과 이로 인한 人力養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國家 발전이란 經濟力의 伸張이 主導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經濟成長의 잠재력은 人力의 質的 向上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초부터 시작된 産業化過程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초 教育을 마친 人力의 供給만으로도 人力需給에 큰 차질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産業構造의 高

度化와 科學技術의 發展 등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해 볼 때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先進社會·先進經濟를 定着시켜 가기 위해서는 보다 體系的이며 效率的인 技術 및 高級人力開發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教育은 質的인 面에서는 量的 增加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人力開發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教育이 안고 있는 課題는 첫째로 人力開發體制의 非效率的인 運用, 둘째로 高等教育의 量的 擴大와 質的 水準의 低下, 셋째로 새로운 人力의 養成과 기존 人力의 質的 水準 向上 등 세 가지가 흔히 지적(한국개발연구원,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1985)되고 있다. 즉,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장기적인 進路指導計劃이 아직 定着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인문계 고교 졸업생들 가운데는 비진학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교로부터 어떠한 技能을 배우지 못한 채 社會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학 진학에 目標를 뒀으므로 社會 진출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직업 教育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문대학 졸업생들 역시 최근에 약간 호전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産業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어 개인으로서나 社會적으로 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중 상당 수가 좁은 4년제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高等教育의 量的 擴大와 팽창은 高級人力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여 人力資源의 낭비를 빚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高等教育의 質的 水準을 저하시킴으로써 高級人力이 갖추어야 하는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技術立國을 통한 先進社會를 추구해 나가는 데 커다란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社會教育體制가 극히 미비한 현재의 여건하에서 기존 인력의 質的 水準의 向上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教育體制下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받는 과정과 기회가 거의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人力開發을 위한 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 즉 人力開發의 效率性이 提高되어야 하며 高等教育의 質的 水準 向上과 더불어 平生教育體制가 확립되어 기존 人力의 質的 水準을 계속해서 향상해 갈 수 있는 方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效率的인 人力開發 體制의 運用

人力開發體制를 效率的으로 運用하여 人力開發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中等教育過程에서부터 進路指導教育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에 토대로 하여 장기적인 職業生涯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進學者와 非進學者를 선별하여 非進學者에게는 능력과 소질에 맞는 職業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進學者에 대하여도 장기적인 勞動市場分析을 통한 취업 전망과 적성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進路指導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능한 한 진학할 대학의 학과를 일찍 선택하여 대비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직업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 수의 학생들이 지망 학과를 미리 선택하지 않고 임시 원서를 작성할 때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 입시의 경쟁률도 한 원인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進路指導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요인도 큰 것으로 보인다. 實業教育 또한 앞으로 技能人力에 대한 知的·技術的 요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실업교육과정의 개편과 內質化가 추진되어야 한다. 실업교육도 量的 擴大보다는 質的 向上에 노력하여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학습과 실험 실습을 확대 함으로써 졸업자가 직업 현장에서 직업인으로서의 빠른 적응과 숙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업교육은 공업, 상업, 농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人力需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교육 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技能人力의 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專門大學의 機能 強化와 質的 水準의 提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은 현재의 직업 전문교육 체계에서 가장 非效率的인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해마다 10여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專門大學 졸업생의 상당 수가 產業體에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專門大學은 基本 教育目標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은 4年制 大學의 短縮課程과 유사하여 독자적 기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專門大學의 教育은 단기 직업교육으로서 產業體의 어떤 職能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러한 目標에 맞게 교육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대 졸업생은 1차적으로 產業體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졸업생 가운데 특수 분야나 우수한 기능자들이 보다 고급 기술을 익히거나 질적 향상을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4. 바람직한 編入學制度의 方向

大學의 양적 팽창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크게 이루어졌다. 해마다 대입 재수생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결국 이것이 社會問題로 등장하게 되자 정부는 이를 30% 범위 안에서 정원의 입학울 허용하는 졸업 정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졸업 정원제는 대학교육의 質的 低下를 가져오게 하였을 뿐, 재수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88년 입학 정원제로 환원되었다. 졸업 정원제로 인해 30%의 학생이 늘어나자 '80년대 이전에 말썽을 빚으면서 일부 대학에서 시행해 오던 編入學制度는 자연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졸업 정원제가 입학 정원제로 환원되면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편입학 문제가 다시 각 대학에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1학기초에는 일부 대학에서 편입생 선발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학기초 일부 대학의 편입학 시험에서 편입학 자격을 專門大 졸업생에게 한정하지 않고 타대학 재학생들에게도 資格을 부여함으로써 일부 대학의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빚어 대학간에 새로운 問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編入學制度는 그 자체가 갖는 意義와 利點이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편입학의 자격을 專門대학 졸업생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4년제 대학의 재학생에게도 허용한다면

대학간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학간의 秩序를 유지하고 新設大學이나 中小規模 大學을 보호·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전문대 졸업생에게만 결원 범위 안에서 편입을 허용하고 4년제 대학 간에는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 4년제 대학 재학생에게도 편입학이 허용된다면 현실적으로 신설 대학이나 일부 지방 대학의 1,2학년 재학생들이 편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될 것임은 물론 이로 인해 엄청난 시간과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마다 일부 중소 규모 대학에서는 학생의 유출 현상이 빚어져 학사 운영에도 많은 차질을 주게 될 것이다.

대학의 정원이 '88학년도부터 그동안의 졸업 정원제에서

입학 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餘席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꾸어 주는 것이 高等教育의 機會를 제공한다는 명분과 함께 現實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만 편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專門大學의 학과는 <표 2>와 같이 117개 대학에 1,161개의 과가 설치되어 29만 1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전문대학의 학과를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 48개과, 사회계 222개과, 자연계 553개과, 의약계 141개과, 예·체능계 141개과, 사범계 56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원 발생으로 편입생의 선발이 가능한 학과는 주로 최근에 신설된 基礎科學分野 및 첨단 과학 분야의 학과

·〈표 2〉 專門大學 계열별 학과 및 학생 수

구 분	학 과	1989년도 입학 정원 수	총학생 수
인 문 계 (어 문 학)	48	3,900	8,548
	48	—	8,548
사 회 계	222	21,020	50,436
자 연 계 (공 학) (농 립 학) (가 경 학) (수산 해양학)	553	56,650	156,997
	349	—	119,196
	109	—	19,655
	78	—	13,294
	17	—	4,852
의 약 계	141	15,030	36,425
예 체 능 계 (예 술 학) (체 육 학)	141	11,300	24,912
	129	—	22,711
	12	—	2,201
사 범 계	56	6,800	13,723
총 계	1,161	114,700	291,041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9.

가 대부분인데(기존 학과는 졸업 정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休學하거나 入隊中이어서 餘席이 발생되고 있지 않음), 이들 신설 학과의 대부분이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사 편입이 허용된다 해도 同一學科의 編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인접 학문 분야나 유사 학과에 편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생을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同一系와 非同一直系를 구분하여 학점의 이수 단위, 수업 기간 등을 조정하여 단순히 4년제 대학의 졸업장을 주는 데 그치지 않도록 制度的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편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80% 이상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도 특히 地方大學이나 지방 캠퍼스 학생들의 상당 수가 편입의 기회가 있다면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편입학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편입학 제도가 전문대 졸업생에게 限定되지 않고 全體大學으로 擴大된다면, '80년도

이전의 無秩序했던 編入制度로 되돌아 갈 우려가 있으며 大學間의 秩序가 瓦解되고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專門大學의 本來 目的이 專門職業教育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編入制度 역시 專門大 설치 목적이나 教育의 內質化에 역행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전문대 졸업생의 자기 발전과 人力의 高級化, 그리고 平生教育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들에게만은 편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4년제 대학간의 편입은 그 명분이나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신입생의 입시 관리와는 달리 편입학의 餘席 및 교사 관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대학이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 관리 자체에도 많은 問題發生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전 편입학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각종 병폐가 또다시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문대 졸업생의 선발이든 4년제 대학간의 선발이든 다같이 해당되는 문제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 외에 聯邦政府, 州

政府, 地方政府, 학교법인, 기타 각종 기부금 등에 教育費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학 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정원의 餘席을 메꾸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학 가운데 81개교로 약 78% 수준이고, 전체 학생 수 1,020,771명 가운데 사립대학 재학생이 773,903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수의 경우도 전체 교수 31,674명 가운데 21,718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대한 극고 지원은 1% 미만으로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의 학사 운영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編入學을 許容해서는 안 된다. 전문대 졸업생만으로도 餘席의 충원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때 편입학 제도의 意義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의 균형 발전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